



동계올림픽·월드컵의 해 밝았다

호랑이처럼 활력 넘치는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동계올림픽·월드컵 축구·아시안 게임 등 국제규모의 대형 스포츠 축제가 예정되어 있어 지구촌이 스포츠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체육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각 대회마다 태극선수들의 선전에 세계 체육인들의 관심도 커져가고 있다. 오는 2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릴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의 대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또 오는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세계 32개국이 참가해 최강을 겨루는 '지구촌 축구 대축제' 월드컵에서도 한국은 16강 진입 가능성을 활짝 열어 놓고 있는 축구 강국으로 꼽히고 있다. 오는 11월 중국 광둥성에서 열리는 제16회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일본과 아시아 2인자 자리를 놓고 치열한 순위다툼을 벌일 예정이다.

2월 '피겨 여신' 김연아 금빛연기, 6월 한국축구 월드컵 16강 기대

11월 아시안게임 8과 2위자리 놓고 자존심 대결...스포츠 강국 도약

▲밴쿠버 동계올림픽= 이번 동계올림픽에는 80여 개국에서 2천6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스키와 빙상·바이애슬론·봅슬레이·루지·아이스하키·컬링 등 7개 종목에 걸쳐 총 86개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뜨거운 가슴으로(With Growing Hearts)'를 대회 슬로건으로 내세운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선수단의 목표는 지난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종합순위 '톱10' 진입이다.

한국선수단은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역대 최다 출전쿼터(남 10명, 여 10명)를 확보했고, '피겨퀸' 김연아(고려대)의 활약을 바탕으로 피겨 여자싱글에서도 역대 최다인 2장의 출전권을 따냈다. 또 지난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6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던 남녀 쇼트트랙 대표팀은 아쉽게 여자 1,000m 종목에만 2명이 나서게 됐지만 나머지 세부 종목에는 모두 최다 쿼터를 챙기며 또 한 번 금빛질주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쇼트트랙에만 메달이 관측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 밴쿠버 대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피겨와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노리는 등 메달 종목의 다양화가 최대 관심사다. 특히 지난해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차지한 김연아는 2009-2010 시즌 그랑프리 시리즈와 그랑프리 파이널까지 석권하며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유력한 우승후보로 손꼽히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7회 연속 본선 진출에 이어 첫 원정 16강' 허정무호가 새해 내세운 올 월드컵 목표이다. 한국은 지난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을 통해 월드컵 무대에 처음 선을 보인 이후 이번 남아공 월드컵까지 통산 8회이자 7회 연속 본선 진출의 대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16강 진출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뿐이다. 당시 4강까지 오르며 파란을 일으켰던 한국 축구는 그러나 원정 대회에서는 조별리그의 문턱을 넘은 적이 없다.

이번 남아공에서도 한국의 16강 진출은 쉽지 않다. 조별리그에서 유럽이 1개 팀만 상대하는 '행운'을 얻었지만 세계 최정상급 전력을 뽐내는 아르헨티나, 그리고 아프리카 축구의 맹주 나이지리아와 묶이는 '불운'이 따랐다.

더구나 1팀뿐인 유럽국가도 2004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우승을 거머쥔 그리스다.

아르헨티나·나이지리아·그리스를 상대로 2승을 올리거나 1승2무2부를 거둬야 16강에 오를 수 있다고 허정무 감독은 예상했다.

사상 원정 16강 진출 과제를 안은 한국 대표팀의 태극전사들은 1월3일부터 희망봉을 향한 본격적인 행렬을 시작한다.

대표팀은 지난달 26일과 27일 파주 NFC(대표팀 레이닝센터)에서 국내파와 일본 J-리그를 주축으로 발표한 35명의 예비 태극전사들을 대상으로 체력 테스트와 자체 연습경기를 거쳐 시험 관문을 통과한 25명 안팎의 선수들로 전훈 멤버를 꾸렸다. 대표팀은 오는 4일 루스텐버그로 떠난다. 루스텐버그에선 실제 월드컵 본선 경기가 치러질 도시로 이동하며 잠비아와 남아공 프로팀인 플레티넵 스타스, 베이 유나이티드 등과 총 세 차례 평가전을 치른다. 열흘 정도 루스텐버그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끝내고 15일 스페인 말라가로 이동해 2차 훈련에 들어간다. 이곳에선 핀란드,

라트비아를 포함한 세 팀과 평가전을 갖는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번 대회에서도 세계 최강 중국에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견제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2위를 자리를 놓고 펼치는 한국과 일본의 자존심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42개 종목이 치러지는데 드래곤보트·크리켓·댄스스포츠가 새로 정식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중국 전통의 스포츠이기도 한 드래곤보트는 옹머리로 치장한 큰 보트에 22명이 승선해 레이스를 펼치는 종목으로 1명은 복을 치며 노를 젓는 선수들의 호흡을 맞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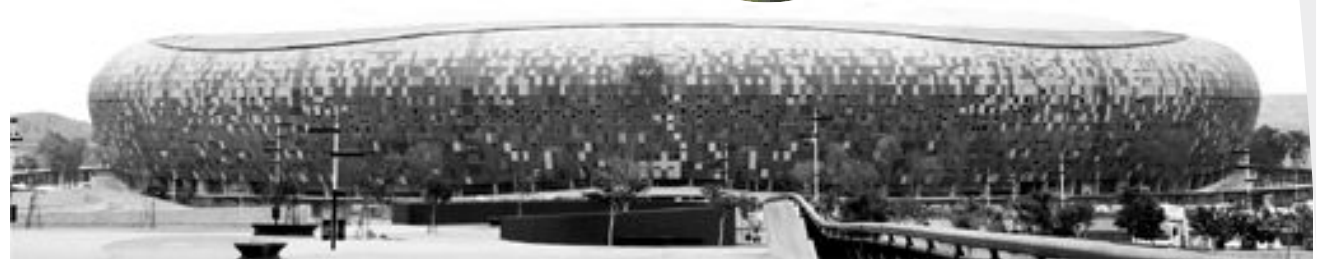
아시안게임은 45개국이 참가하지만 메달 경쟁은 사실상 중국·한국·일본 등 세나라가 펼친다.

미국과 함께 국제 스포츠에서 '빅2'로 자리잡은 중국은 안방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도 200개에 육박하는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퍼시픽 콜라세움
사커시티 스타디움▶



영 / 화 / 안 / 내

여러분의 기쁨이 평화와 행복을 기원합니다



메가박스

1관	전우치 (12세)	최고급관
2관	아바타 (12세)	
3관	나인 (15세)	
4관	설복음즈 (12세)	
5관	전우치 (12세)	
6관	엘빈과 슈퍼밴드2 (연세)	
7관	전우치 (12세)	
8관	걸프렌즈 (15세) / 설복음즈 (12세)	
9관	파르나서스 박사의 상상극장 (12세)	
10관	아바타 (12세)	

• 아프리카 주자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산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 런던역국사거리 ☞ 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1관	설복음즈 (12세)
2관	파르나서스 박사의 상상극장 (12세) / 뉴문 (12세)
3관	아바타 (12세)
4관	아바타 (12세)
5관	엘빈과 슈퍼밴드2 (연세)
6관	전우치 (12세)
7관	전우치 (12세) / 아바타 (12세)
8관	나인 (15세)
9관	전우치 (12세)
10관	아바타 (12세)

원도사할 영화사관 • 1588-7941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매달임 (무역화관객만)



1588-7941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매달임 (무역화관객만)

하미시네마

1관	뉴문: 트와일라잇2 (12세)
2관	전우치 (12세)
3관	나인 (15세)
4관	모범시민 (15세)
5관	전우치 (12세)
6관	2012 (12세)
7관	아바타 (12세)
8관	아바타 (12세)
9관	전우치 (12세)
10관	설복음즈 (12세)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 365 매일 심야
• 아동 동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하이 수영장 269-5757 • 하이 볼링장 262-0925
• 하이 골프장 251-5060 • 하이 당구장



고려사할 고객관람 • www.hamichinema.co.kr / 1588-9120
전대무한 하미시네마 ☞ 267-7777

씨너스전대

1관	나인 (15세)
2관	아바타 (12세)
3관	전우치 (12세)
4관	아바타 (12세)
5관	파르나서스 박사의 상상극장 (12세)
6관	설복음즈 (12세)
7관	전우치 (12세)
8관	전우치 (12세)
9관	아바타 (12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ARS 전화예매 1544-0070

• 무료주차 3시간 • 아동 동선사 할인혜택
• 세너스극장 사우나 (오전5시~오후11시)



색깔있는 영화상영 • www.cinusa.co.kr / 1544-0070
복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제일시네마

1관	아바타 (12세)
2관	아바타 (12세)
3관	나인 (15세)
4관	설복음즈 (12세)
5관	뉴문: 트와일라잇2 (15세) / 모범시민 (15세)
6관	엘빈과 슈퍼밴드2 (연세)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출점 -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세로문 기점 • www.primuscinema.com/www.jelcinema.co.kr •
총상도 3기 ☞ ARS 전화예매 ☞ 227-1960